

종교개혁전통과 삶으로서의 법

전해정,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I. 삶, 체험, Context 중심의 종교개혁전통

이 글 앞부분에서는 텍스트 text와 맥락 context, 체험 중심의 종교와 삶으로서의 법을 중심 주제로 하여 슐라이어마허의 종교이론과 성서해석이 하이데거의 해석학과 가다머의 해석학에 영향을 미쳤고, 이후 철학적 법해석이 가다머의 해석학의 영향을 받아 법실증주의에 근거한 법학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음을 다룬다. 다음으로, 가족을 삶으로서의 법을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 삼아 가족법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제 가족과 평등 가족, 그리고 성서에 나타나는 엄격한 아버지 가족모델과 자상한 부모 가족모델이 슐라이어마허의 종교이론과 성서해석이 법해석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필 것이다. 이는 맥락context 중심의 종교개혁전통을 삶으로서의 법으로 실현하고자 함이다.

II. 슐라이어마허의 종교이론¹⁾

1. 내용

슐라이어마허는 종교의 교리보다 체험을 중시한다. 그는 종교를 단계별로 구분하면서 실정종교를 옹호하고, 자연종교를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종교의 본질은 직관과 감정이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감성적 직관이다. 종교가 체계 속에 머문다면 개인에게 아무런 생명력을 줄 수 없다. 성스러운 존재와의 만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이성이 아니다. 이를 근거는 슐라이어마허는 개별적 종교현상과 종교의 다양성을 주장한다.

종교적 의사소통은 종교적 체험에 근거한 종교 공동체는 상호전달을 통해 교제이다. 무한자의 체험은 경전과 교리에 선행하며 체험 없는 가르침과 배움은 공허하다. 삶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종교는 죽은 문자와 같다. 즉 종교가 죽은 문자의 껍질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사멸할 수 있다.

2. 자연 종교 비판

슐라이어마허는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연종교는 의례의 법전과 추상적 개념과 이론의 체계로 나타난다. 종교의 공유성(범신론, 다신론,

1) 강돈구(2000).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

이신론, 인격주의 등) 무시하며, 다양한 체험을 일반화(예: 신 존재 증명)한다. 또한 자연 종교는 강의와 교육에 의해 증명된 신을 암기하도록 강요한다. 결국 생명력이 부재하다. 자연 종교는 마치 법학에서 실정법(법실증주의)과 비슷하다.

3. 실정종교 옹호

실정종교는 생동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것을 전개시킴으로써 이전의 삶과 구별한다. 종교적 삶은 무한자로부터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순간 시작된다. 새로운 삶에는 그 때마다 새로운 의미와 고유성이 포함된다. 실정종교에서는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 중요하다. 자연 종교가 주장하는 체험의 일반화는 무익하고 앞서 말한 대로 생명력이 부재하다. (자연종교 비판)

술라이어마허는 종교현상과 종교 그 자체를 구별한다. 이는 종교다원주의와 비교된다. 술라이어마허에 따르면 종교의 다양한 현상은 종교의 새로운 모습이다. 육화된 신으로 나타난 종교는 여러 형태가 있다. 그러나 술라이어마허는 그 중에 신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종교를 발견할 것을 주장하고 기독교는 우주를 가장 아름답게 본 종교로서 종교 중의 종교라고 한다.

III. 술라이어마허의 성경해석

1. 이해의 순환구조, 문맥context

술라이어마허는 언어적 해석과 심리학적 해석 구분한다. 그는 이해의 순환구조 속에서 불가분적인 교호 규정의 관계를 분석한다. 술라이어마허에 따르면, 낱말의 단일성, 즉 낱말의 특수한 사용방식들에 존재하는 하나의 공통된 기반은 언제나 특수한 언어 사용에 대한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낱말의 단일성 그 자체를 대상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낱말의 단일성은 문장이나 텍스트 등 현실적 언어에서 주어진 언어 요소의 개별적 문맥 context에 의해 규정.

2. 이해와 선이해의 인식론적 순환

술라이어마허에 따르면, “이해는 인식순환에 있어서 수행되는 미종결적인 무한한 접근행위”이다. 이해의 순환구조는 본질적으로 언어와 사유의 근원적 교호 과정에 근거이다. 인식론적으로 부분의 이해와 전체의 이해, 추론과 직관, 비교의 방법과 예료적 방법의 해석학적 순환을 의미한다. 가령, 전체를 예료적으로 파악하는 선이해의 불명확성은 부분들의 비교를 통한 추론적 이해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을 다시 전체의 이해에 의해서 좀 더 정확한 규정으로 점진적

으로 접근한다.

슐라이어마허는 이해의 단초로서의 예료적 선이해를 주장한다. 여기서 '예료적'의 의미는 근원적 이해력을 말한다. 선이해는 후술하는 해석학적 순환을 수용한 철학적 법해석학과 법수사학에 영향을 미친다. 슐라이어마허가 주장한 이해와 선이해의 인식론적 순환은 이후 하이데거의 이해의 존재론적 선구조, 그리고 가다머의 역사와 전통으로부터 인식에 부가된 선입견에 영향을 미쳤다.

IV. 슐라이어마허의 영향

1. 하이데거, 이해의 존재론적 선구조

하이데거Heidegger는 이해 자체를 이미 인간 존재의 기본적 존재 방식으로 본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학에 따르면 이해주체와 이해대상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는 방법론으로서의 해석학 즉, 객관화된 삶의 형태- 정신적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론과 구별된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해는 인간 현존재의 기본 운동성이다. 인간의 현 존재는 이미 이해됨 속에 던져져 있고(인간 존재의 피동성) 따라서 존재론적으로 이해의 선구조를 밝히고 현존재의 시간성으로부터의 이해의 순환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해는 현존재의 존재방식이고 현존재가 그 무엇을 이해할 때, 그 곳에는 이해의 선구조가 내재하고 있다. 이것이 이해의 선구조이다. 또한 현존재가 수행하는 이해와 해석이 이해대상과 일정한 순환관계를 가지는데, 이것이 해석학적 순환이다. 하이데거의 이해의 선구조와 해석학적 순환은 이후에 가다머에 의해 수용된다.

2. 가다머²⁾

(1) 역사와 전통에 근거한 선입견

계몽주의가 선입견을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본 반면, 가다머는 선입견을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강조하였다. 가다머의 선입견은 이해의 근거조건(존재론적 & 선험적 조건)이다.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은 가다머에 따르면 선입견은 이해의 존재론적 선구조로서 이해자에게 이미 전제되어 있다. 선입견은 이해자가 텍스트를 이해하기 이전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전승(전통의 시간적 흐름)'이라는 경험형태를 반영한다.

하이데거가 선입견의 근거를 개인으로 본 것에 반해, 가다머는 선입견의 근거를 권위와 전통으로 보았다.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선입견의 집단성, 전체성 권위와 전통을 중시한 견해이다. 가다머는 권위를 긍정적으로 이해하였다. 권위는 합리성에 바탕을 둔 인식과 승인에 의해 형성된다. 권위는 반이성적인 것

2) 한스게오르크 가다머(2012), 「진리와 방법2」

이 아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인식과 승인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행위이고, 선입견도 인식과 승인을 통해 형성된 설득력 있는 것이다. 또한 전통은 가장 대표적인 권위이다. 전승과 관습(인습이 아니라)을 담고 있는 전통은 현실적인 풍속을 근거 짓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가다머에 따르면, 선입견은 전통이 담고 있는 역사성(영향사적 의식)을 반영한다. 여기서 영향사란, 이해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흐름의 작용방식을 말한다.

가다머의 해석학은 법학에 영향을 미쳤다. 가령, 독일 법학자, 칼 엥기쉬Karl Engisch는 법해석자의 개인적 확신 주장을 주장하였다. 가다머의 선입견이 법해석학에서 선이해로 수용되었다.

[2] 지평융합과 해석학적 순환

가다머의 지평이란 어떤 한 관점으로부터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관점영역으로서 해석자가 벗어날 수 없는 해석학적 상황을 말한다. 여기서 해석학적 상황이란, 이해자가 전승 아래 서 있고, 여기서 그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상황이다. 지평은 개방된 그 무엇이고 동시에 끊임없이 운동한다. 과거의 지평이라 할지라도 고정된 시공간에 얽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운동과정에 있다.

이해란, 나와 타인의 관계를 통일하는 것이므로 이해과정에서 나의 지평과 타인의 지평으로 분열할 수 없다. 이해과정에서 두 개의 지평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지평 안으로 객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평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해란 과거의 지평과 현재 자신의 지평이 융합되는 과정이다. 이해한다는 의미는 영향사적 인식(역사성)과 관련을 맺는 전승(전통의 시간적 흐름)과 만난다는 것이고, 텍스트와 현재 사이에 펼쳐지는 긴장관계를 경험한다는 뜻이다. 전술한 바 대로, 이것이 법해석학에서 해석학적 순환으로 수용되었다.

3. 법해석

[1] 선이해, 해석학적 순환

술라이어마허의 종교이론과 성서해석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학에 영향을 주었고, 이어서 가다머의 해석학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해석의 중심이 텍스트text에서 맥락Context(체험, 경험, 삶)으로 옮겨갔다.

술라이어마허의 체험중심의 종교이론과 해석학이 법에 미친 영향은 한마디로 말해 <규범 중심의 법>에서 <삶으로서의 법>으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삶으로서의 법 내지 삶 중심의 법해석은 선이해를 인정한 해석학적 순환 즉, 철학적 법해석이다. 이를 통해 사용상의 언어를 고려하면서 사례들의 유사성을 비교하고, 사례해명과 합목적성을 위해 법개념을 확장한다. 맥락context이나 삶

중심의 법해석은 논증이론이나 법수사학으로 나아간다.

[2] 규범 중심의 법

기존의 법해석은 텍스트Text 중심의 법해석이다. 법실증주의(존재하는 법만이 진리)에 따르면, 법과 도덕을 구분하여 법에서 가치를 배제한다. 때문에 가치를 다루는 법철학과 구분하여 법이론이라 명명한다.이 때 법이론이란 법학방법론을 말한다.

법실증주의에 근거한 기존의 법학방법론은 고전적 형식논리학에 따라 법률규범을 대전제로 하고 발생한 사안을 소전제로 하여 포섭관계를 따져 결론을 도출하는 삼단논법을 사용한다. 대전제와 소전제의 포섭관계를 추론하는 이 방법은 양자택일(all or nothing)을 해야 한다. 즉 처벌하든지 처벌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이는 입법자 중심의 방법론으로서 입법자의 의도 등에 따라 규범의 개념을 밝히기 때문에 흔히 법학을 개념법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법률규범을 중심으로 개념을 밝히는 개념법학은 따라서 개념실재주의를 따른다.여기서 법관은 단순한 법적용자일 뿐이다.³⁾ 법이 흠결된 경우에서 법률체계내에서 해석해야 하며 법관의 관점이 배제되어야 한다. 좁은 의미의 법해석은 법적 안정성 중시하고 가치중립성을 추구한다.

[3] 삶으로서의 법

술라이어마허, 하이데거, 가다머의 해석학적 순환을 수용한 맥락Context 중심의 법해석은 삶으로서의 법을 다루며, 법관의 선이해를 통한 체제초월적 법해석, 즉 철학적 법해석이다.

법실증주의에 근거한 기존의 법학방법론(법이론)과 달리, 법과 도덕의 관계를 인정하고 법이 가치를 담지한 것으로 보는 비실증주의에서의 법철학은 법이념(법의 존재이유), 법원리 등 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다룬다.

어떻게 원리규범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통약불가능성테제)를 고민하며 (원리)논증 내지 수사학까지 이어지는 철학적 법해석은 다양한 사례들을 비교하고 형량하면서 비례/균형 심사를 통해 사례해결을 위한 합목적성(개별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강조한다. 이는 개념보다 사안이 선재하는 것으로 보는 유명론과 연결된다. 급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법관은 비판적 성찰자, 참여자적 관점으로 기존의 법개념 확장할 수 있다. 이는 법관의 법형성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V. 가족법: 삶의 기초인 가족

3) cf.가다머, <진리와 방법2>, 224면 이하

가족은 인간 삶의 가장 근저에 있는 기초 단위이다. 그렇기에 가족관계를 다루는 가족법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삶으로서의 법이다. 가족은 삶으로서의 법을 실현할 수 있는 장(場)이다. 가족관계를 법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 법이 어떻게 가족을 개념정의 하는가는 삶으로서의 법을 다루는 법해석을 위해 중요하다.

법에서 상정하는 가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부장제 가족과 둘째, 법 앞에 평등 가족이다.

1. 가부장제 가족 4)

가부장제 가족에서 아버지(가부장)는 가족의 장이고 가족의 다른 구성원은 모두 그의 지배에 복종해야 한다. 아버지가 가족의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 지배권 소유하고 아내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광범위한 법적 권한 소유한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와 미혼 자녀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 아들의 아내들은 시아버지의 지배아래 복종하거나, 때때로 시어머니를 매개로 시아버지의 통제 아래 놓인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재량에 따라 아버지를 대신하여 자녀에 대한 법적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권한은 아버지의 권한보다 열등하다. 가령, 어머니의 친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아버지가 사망하여도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할 수 없어 제3자를 지정해야 한다. [아래 그림 참조]

| | |
|---|---|
| 부 | |
| 모 | 자 |

| | | |
|---|------|------|
| 부 | | |
| 모 | 기혼아들 | 미혼아들 |
| | 며느리 | |

| | |
|-----|---|
| 부 | |
| 모 | 자 |
| 며느리 | |

| |
|---|
| 부 |
| 모 |
| 자 |

2. 법 앞에서의 평등 가족⁵⁾

가족 관계 내 법 앞에서의 평등 이념 등장하면서 법 앞에서의 평등가족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평등가족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는 법적으로 평등하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법적인 통제

4) 프랜시스 올슨(2016), 「법의 성별」, 가부장 가족 형태
 5) 프랜시스 올슨(2016), 「법의 성별」, 평등 실현을 위한 가족 형태

권한 인정하고 아버지 우위의 계층성이 완화되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한이 평등하게 배분된 가족구조이다. 가족구성원의 상호관계 평등화가 실현되기도 하여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와 대등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된다. 비록 법적으로 아버지의 계층적 우월성은 없으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에 대하여 사실상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 [아래 그림 참조]

| | |
|---|---|
| 부 | 모 |
| 자 | |

| | | |
|---|---|---|
| 부 | 모 | 자 |
|---|---|---|

VI. 기독교 가족 모델

성경에 나타난 가족모델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가족법에서 가부장제 가족과 평등가족으로 구분되듯이 성경에 나타난 가족모델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엄격한 아버지 모델과 둘째, 자애로운 부모 모델이다. 흔히들 엄부자모라고 하여 엄격한 아버지에 대칭된 의미로서 자애로운 어머니라고 한다. 그러나 자애로운 부모 모델은 앞서 살펴본 평등 가족을 고려할 때 아버지 또한 자애로울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1. 엄격한 아버지 모델과 기독교⁶⁾

'주는 나의 목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엄격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비유한다. 엄격한 아버지 모델에서는 먼저, 아이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저항하지 않고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는 아이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 하나님은 규칙을 정하시고 권위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간주된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도덕적으로 나약하다. 아담과 이브의 원죄가 그 예이다. 원죄의 결과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삶을 빼앗아 갔다. 모든 사람은 도덕적 약함 때문에 커다란 도덕적 부채를 지고 지옥에 가게 될 운명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원죄, 육체적 본질로부터 야기된 운명을 빠져나갈 길을 제공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예수는 인간을 지옥으로부터 구해주므로 구세주이시다. 죄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분을 주로 받아들인다면 죄를 깨끗이 씻어주겠다는 계약을 주셨다. 인간은 죄인으로서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계명을 준수해야 한다. 엄격한 아버지 모델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그 중심이다. 하나님의 엄한 계명, 순종의 요구, 도덕적 힘의 우선권, 절제와 극기의 필요, 그리고 보상과 징벌을 통한 강화가 그 특징이다.

6) 조지 레이코프(2010), 「도덕, 정치를 말하다」

2. 자애로운 부모 모델과 기독교

자애로운 부모 모델에서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이들의 순종은 부모의 적절한 양육의 결과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원초적이고 지속적인 양육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인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자애로운 부모이다. 그리스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양육을 전하는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양육이다.

도덕적 행동은 자애로운 행동(감정이입을 통하여 돕고, 연민을 나타내고, 사랑이 동기가 된 행동 등)이다. 반면, 비도덕적 행동(죄)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양육적인 행동(감정이입의 결여를 통한 해 끼침, 연민에 찬 행동의 결여 등)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애로운 부모 해석의 중심 개념이다. 양육으로서의 은혜 비유는 풍성한 은혜 개념과 연결된다. 자애로운 부모 해석에서 원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양육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우리가 양육하는 행동(즉 도덕적인 행동)을 배우는 방식은 양육 받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양육해주는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다.

원죄는 우리가 선천적으로 충분한 도덕적(양육하는) 존재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인간이 부모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고 길러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보여준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 그의 완벽하고 끊임없는 양육,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양육을 받는 상태이다. 하나님은 양육하는 존재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므로 자녀들이 영원히 고통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양육자로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타인들에게 감정이입하여 다른 사람들의 혜택과 발전과 행복을 위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큰 고통을 받으셨다. 예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양육을 전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푀다.

3. 검토

(1) 엄격한 아버지 모델

하나님은 도덕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사람의 역할은 하나님의 엄격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을 배우는 방식은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을 통하는 것이며, 자기 부정을 통해 순종하는 자제력을 개발시킨다.

좋은 사람이란 자제력을 갖추고 자립적이고 계층구조 안에서 잘 적응하고 위로부터의 엄한 계명에 순종하고 아래로는 엄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고통과 함께 그 계명을 강화하는 사람이다. 이 때 세상은 경쟁적이고 생존하기 어려운 곳이다.

엄격한 아버지 모델은 앞서 본 가부장 가족 형태로서 규범(text) 중심의 법과 연결된다.

(2) 자애로운 부모 모델

하나님은 양육자시고 하나님과의 적절한 관계는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가 보여준 양육하는 태도를 따르는 것이다. 여기에는 엄격한 규칙 부재한다. 오히려 감정이입을 통해 다른 사람의 혜택을 위해 요구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인간은 궁극적 양육자인 예수의 모범을 따른다.

좋은 사람이란 양육하는 사람, 상호 의존적인 상황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사회적 연계, 커뮤니케이션 협동, 친절함, 그리고 신뢰가 필수적이다. 세상은 상호의존적이고 자비로운 곳이어야 한다.

자애로운 부모 모델은 평등 실현을 위한 가족 형태, 삶(context)으로서의 법, 슐라이어마허의 종교이론/성서해석과 연결된다.

VII. 종교개혁의 전통, 지향해야 할 법의 모습은?

엄격한 아버지 모델은 전통적인 법 모델(규범 중심의 법, 법실증주의에 따른 법학방법론)과 유사하고, 반면에 자애로운 부모 모델이 법에서의 평등을 실현하는 가족구조로서 삶으로서의 법, 사안 중심의 철학적 법해석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체험과 맥락(context)을 중시하는 슐라이어마허의 종교이론/성서해석에 기원한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엄한 아버지인가, 자애로운 부모인가? 종교개혁의 전통에 비추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법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애로운 부모로서 은혜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인간을 살리는 삶(체험, context)으로서의 법을 지향해야 한다. 법 앞에서 평등한 가족 구조를 반영한 가족법이 그 실천의 장이다.